

제34차 한일·일한포럼 공동성명

‘공동의 미래를 향한 한일 협력’

제34차 한일·일한포럼은 2026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과거를 넘어 공동의 미래로’ 제하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해 포럼은 ‘공동의 미래를 향한 한일 협력’을 주제로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 논의를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금번 포럼은 지난해 한일 양국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양국의 정치 및 외교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먼저 환영하였다. 한일 정상들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통해 정치 신뢰 관계를 구축한 것은 민간 차원을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큰 의의를 지닌다. 포럼은 이러한 한일 관계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와 한일 관계’, ‘고조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일 협력’, ‘미래사회 전망과 공통적 과제’, ‘주니어 포럼과의 대화’,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경제 안보’, ‘공동의 미래를 향한 한일 협력’ 등 5개 세션을 마련하여 솔직하고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한국과 일본을 둘러싼 지역에서는 엄중한 안보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한일 양국은 이전보다 더욱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를 위한 한일의 주체적 노력을 강조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언급하였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에너지 안보 협력은 양국 국민들의 삶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한일이 함께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중 전략적 경쟁에 더해 중동 정세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한일은 각국의 국민 경제와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더욱 구체적인 협력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CPTPP 가입을 비롯하여, 한일 디지털 무역 협정의 체결, 산업기술 협력 등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일 양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을 비롯한 다양한 안보 협력 틀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한일 국방 당국간 대화 및 협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올해 국방장관 간 상호 방문이 성사된 것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일 안보 협력은 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국은 차관급 한일 안보대화를 추진하며 협력 성과를 꾸준히 쌓아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일, 그리고 중국과의 공동이익을 모색하는 한중

일 협력 등 역내에서 한일을 포함한 다층적인 협력 틀 안에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한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사회적 과제의 협력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8월 한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공통적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당국간 협의체가 발족되었는 바, 양측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저출생·고령화 사회, 수도권 집중 현상 및 지방 활성화도 한일 양국 사회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그동안 양국이 쌓아온 경험과 대책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한일 협력의 토대가 된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용 및 활용에 힘쓰고 있는 바, 이를 사회적으로 구현하여 한일의 공통적 과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한일간 인적 교류가 지난해 1,3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론조사에서 상대에 대한 친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양호한 한일 관계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동의 미래를 향한 협력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한일 양국은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 증진을 통한 우호관계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 달 동안 실시한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와 같은 한일 양국간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원활화는 양국 국민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미 실시 경험이 있는 조치인 만큼, 상호주의를 전제로 상시화를 지향해야 한다.

더 나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나온 한일 관계 발자취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필요하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쌓아 온 노력을 존중함과 동시에,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와 교류 그리고 제반과제 논의를 위한 협의체 등 협력 실행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양국 정부에 건의한다.

특히 양국의 청년세대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통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포럼은 2015년부터 '주니어 포럼'을 마련하여 그러한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한일·일한포럼은 창설 당시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간 대화를 통해 한일 협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26년 7월 31일 도쿄에서

일본측 의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長嶺安政

한국측 의장

강창일

